

여수수협 2년째 풍어제 불참 논란

문화보존회 “영당자리 창고 건립 제안 거절하자 외면”

여수수협 “영당 낡아 이전 제안…보복성 주장은 억지”

여수수협이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풍어제(豊漁祭)에 2년째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사단법인 향토민속문화보존회(회장 정홍수)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수시 국동 영당단지내 영당에서 ‘제31회 영당풍어제 및 풍어굿’이 열렸으나 정작 어민을 대표하는 여수수협이 불참해 행사 의미가 뇌색됐다.

여수수협은 그동안 영당 풍어제가

열리면 행사비 지원은 물론 수협 조합장이 어민을 대표해 의관을 갖추고 제례에 참석했으나 2년 전부터 행사 불참과 함께 지원을 끊고 있다.

향토민속문화보존회 관계자는 “3년 전 수협이 행사장인 영당 자리를 헐어 창고를 짓고 인근에 새로운 영당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와 이를 거절하자 2년전부터 지원을 끊고 지적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풍어제 행사를 맡은 K씨도 “3년이 바다이면서 어업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여수에서 수협이 풍어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언근 거문도 수협과 산천포 수협은 풍어제를 위해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규모 큰 여수수협의 태도는 전혀 납득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수협은 수협이 주도적으로 풍어제를 하겠다는 입장이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항 조합장은 “현재의 영당이 낡아 위험한 상태라 돌산공원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다”며 “그러나 이를 거절해 우리가 풍어제에 불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수수협은 올해 전남대와 함께 풍어제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최영·이순신·이대원·정운장 군과 융왕신·산신을 봉안한 여수 영당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다 1960년에 재건해 지난 2008년 12월 전남도 민속 자료 44호로 지정고시됐다. 영당 풍어제·풍어굿은 지난 1991년 ‘제32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수자원공 여수권관리단

광양 사랑나눔 의료봉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여수권 관리단(단장 흥윤운)은 (사)열린 의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광양시 진상면 진상초등학교에서 ‘사랑나눔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의료서비스 수혜가 적은 수어법 주변지역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무료 의료봉사는 여수권관리단 직원과 의료진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진료는 선호도가 높은 치과를 비롯해 내과·한방·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총 5개 과목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총 5대의 차량이 운행된다. 문의(061-688-5215)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고흥지역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지난 26일 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의 ‘사랑의 레시피’ 행사에서 케익을 만들고 있다. 센터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안착을 위해 매월 ‘패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이순신광장 한마당놀이

여수시 음악회 등 행사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성공을 다짐하는 ‘이순신광장 한마당놀이’ 행사가 오는 30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사)대한가수협회 여수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난타·발리댄스·음악회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함께 시민노래자랑·장기자랑 등 시민 참여행사가 이어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3월말 개장한 이순신광장 시민나들이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려 했으나 전안함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곡성에 밭아현미 유기농생산단지

군-가공업체 협력 20ha 규모 조성

곡성군 관계자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가공유통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벼 유기농재배를 통해 200ha에서 내년에는 500ha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겨를 벗겨낸 현미를 적당한 수분과 온도·산소를 공급해 1~5mm 정도 크기로 쪄운 ‘밭아현미’는 비타민과 아미노산·효소 등 몸에 유용한 성분들이 생겨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 관계자는 “삼암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게 된다.

국내 선두 밭아현미 생산업체인 미실란은 지난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밭아현미 원묘과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생산단지는 밭아현미 전용품종인

‘삼암벼’를 최종 선발했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화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국

싼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 시
계 약

물물교환도 환영

금산공인중개사

T. 081-5688 H. 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450㎡ (180평 분할가능)

■ 3.3m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통합병원/상가/오피스/유통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강진군 칠성면

칠성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 주유소건설 허가 특

- 도로점용 허가 특

- 미분양에서 광주상생선 주유소부지

- 2010년 6월 원공 철량농공단지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 면적: 약 3,870㎡

■ 단 가 : 평당 200만원

■ 위 치 : 매월 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리, 가든, 전원주택

최적화

■ 지가 급등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크 놈’

®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

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큼을

갖고 이것

저것을 고아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

어려움에

돌이켜 봤을

때문에 벌

나에게

나에게